

전주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만든다

서부시장상점가·신중양시장, 쇼핑·문화체험 등 시장 경제 활성화 위해 올해 9억1000만원 투입

전주시가 서부시장상점가와 신중양시장을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전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활용해 올해 서부시장상점가와 신중양시장에 9억1,000만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중양시장은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000만원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올해 사업의 테마를 '들樂(락) 날樂(락) 신나'는 전주신중양시장'으로 정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올 때 즐겁고 나갈 때도 기분 좋은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시장 상인 역량 강화와 시설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시는 신중양시장 추진사업단과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축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시 찾고 즐기는 지역 명소가 되도록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시는 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관광연계 문화축제인 한사발막걸리 축제 △디자인 특화 알뜰체계 개선 등을 통한 특화환경을 구축하였다.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인 '시장이 학교'는 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상인역량강화 교육과 특화상품기획, 시장 DB 구축,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서부시장상점가도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는 서부시장상인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단장 선임과 사업단 구성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서부시장상점가만의 특화 요소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확보와 노점상의 비기법 시설 설치 등이 선결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병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10년후, 20년 후에도 우리의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경제시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건강·젊음 넘치는 어르신들'

전주시 완산구, 은빛사랑 문화교실 개강식 개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5일 '웃음꽃 만개! 건강하고 젊음이 넘치는 어르신들'이라는 주제로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은빛사랑 문화교실 개강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프로그램 강사 위촉식과 문화교실(노래·댄스)에 대한 운영 안내와 노래강사의 축하 공연 등으로 개강식이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은빛사랑 문화교실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요교실과 건강댄스 교실의 2개 프로그램으로 3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1회에 걸쳐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댄스교실을 다시 신청한 양덕기(82)씨는 "구청에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줘서 감

사하다. 부부와 또는 친구와 함께 배우며 익힌 것들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있다"며, "덕분에 건강하고 보람 있는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어 맘껏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속에서 행복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은빛사랑 문화교실이 더 발전하여 지역사회의 소통하는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현장점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 보호 위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5일 관내 서서학동과 중화산동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사고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안전 공사가 필요하다"고 현장을 지휘 했다.

이번 점검지역은 해빙기 및 호우대비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현장으로 시는 '서서학10지구 및 도토리골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우 시장은 사면 및 구조물의 균열·붕괴 등의 결함에 대한 안전성과 사업구간 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집중 살폈다.

이와 관련, 현장 방문이 진행된 서서학10지구는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붕괴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지역



우범기 전주시장은 5일 관내 서서학동과 중화산동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이다. 시는 완산구 학봉길 29-8일원 500㎡) △운역 △수루관 등의 정비를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들

여 추진한다.

도토리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완산구 전주천서로 279-45일원의 절개지 22,863㎡의 정비를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약 80억원정도를 투입해 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우 시장은 현장에서 "급경사지 등의 현장은 3~4월 해빙기가 시작되어, 그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발생, 붕괴 위험 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한다"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확인 시 즉각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급경사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인인 맡은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업무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2563대 구매 지원

전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에 약 3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563대(승용 1875대, 화물 688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은 국비 30%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용으로 구입할 때도 국비 10%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택배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출고한 뒤 택배업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1000대와 전기화물차 400대를 포함해 총 1400대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35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까지다. 보조금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둔 전주시 거주자와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특히 올해 전기택시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추가보조금이 2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인상돼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또,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소상공

인은 국비 30%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용으로 구입할 때도 국비 10%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택배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출고한 뒤 택배업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시도로 매매 혹은 폐차·수출 말소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금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업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실내체육관 '대관 전용 시설'로 운영

전주월드컵경기장과 함께 지역 프로스포츠의 양대 명소로 꼽혔던 전주실내체육관이 이제 다양한 쓰임새로 폭넓게 활용된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올해 준공 50년째를 맞는 실내체육관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대관 전용 시설'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실내체육관이 KCC 이지스의 홈구장으로서의 역할을 더하자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같이 운영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은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상업 행사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전주실내체육관 전경

실제 실내체육관은 지난해 KCC 이지스의 연고지 이전을 전후해 여러 대회와 행사를 잇따라 유치했다.

올해 진행될 대관 행사를 지난해 연말 사전 접수한 결과 총 26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왔으며, 현재 추가로 대관 신청을 받고 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 홍보 부스 운영

전주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개강 맞이 행사에 초대돼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림의 거리에서 4~5일 '청년 주거복지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이날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 안내문을 배부하며 청년 세대의 독립과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활용 방법을 알렸다.

또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또는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정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맞춤형 정책 홍보 및 현장 상담을 가졌다.

한편 주거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할 때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육기 기자



청년 주거복지 정책 홍보 부스 운영 모습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